



애원, 구례 수재민에 마스크 5만장 기부

“나눔과 자원봉사는 우리 사회 일상회복 원동력”

사단법인 자원봉사에원은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마스크 제작업체 ㈜더이름에서 기부한 보건용 마스크 10만장(1억5,000만원 상당)을 구례군과 충남 금산군에 각각 5만장씩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문훈숙 애원 이사장은 “코로나19와 유례없는 긴 장마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후원해 주신 더이름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나눔과 자원봉사는 우리 사회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박희준 ㈜더이름 대표는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돼 마스크를 후원하게 됐다”며 “수해지역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증된 보건용 마스크 10만개는 식약처 허가약외품으로 가장 높은 등급인 KF94 제품이다. 자원봉사자와 지역주민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수해복구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다.

한편, 애원은 이에 앞서 ‘코로나19 함께 이겨내기 위한 따뜻한 행동 꿈씨 브릿지’를 통해 인삼제품 1억7,000만원 상당을 대구시 동구청에 전달했으며, 재난취약계층에 마스크 등 방역용품을 지속적으로 기부하고 있다. /김종찬 기자

“삶 속에서 깨달은 생각 글로 표현하고 싶어”

조선대 김승연씨 시집 출간

새벽 감성 가득한 ‘나의 봄은 밤에 피었습니다’ 꿈공장플러스 출판사 신인발굴 프로젝트 발탁

“고등학교 때부터 밴드활동을 하면서 작사를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대학에 진학할 즈음 노래 가사엔 제 생각과 감성을 담기에 한계가 있다고 느껴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김승연씨가 시집을 출간해 화제다.

김씨는 올해 출판사 ‘꿈공장플러스’가 주관해 열린 신인발굴프로젝트에 발탁되어, 지난 7월 21일 시집 ‘나의 봄은 밤에 피었습니다’를 출간했다.

공대생인 김씨의 시집 ‘나의 봄은 밤에 피었습니다’는 새벽 감성이 가득한 시집이다. 그는 짝사랑이나 이별을 겪은 후, 여러 생각으로 잠 못 이루던 밤의 감정을

시집에 오롯이 담았다. “지나보면 그 순간들이 나 자신에게는 바로 빛나는 봄이었다”고 말한다.

“당신에게 봄은 어떤 의미인가요? 원하는 시험에 합격한 순간,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받은 순간,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도착한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순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추억이 다르듯 각자의 봄날도 다르겠죠. 그 눈부신 봄이 지나막한 밤에 피어난 경이 있었나요? 누군가를 생각만 해도 웃음이 떠나지 않는 밤, 또는 그 누군가 때문에 울음이 멈추지 않는 밤. 어떤 모습이든 모든 순간은 찬란했을 겁니다. 나의 봄은 밤에 피었습니다.”

글을 쓰는 순간만큼은 누군가의 낭만



에게서 들은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떠올린 시 구들도 있다고 했다.

“공대생이 시를 쓴다는 것의 어려움이지만, 학과 공부도 하면서 시에 대한 애정도 키워갔죠.”

첫 시집 출간 이후, 현재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는 중인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틈틈이 감성글귀를 쓰며 팔로워들과 소통하고 있다.

“시를 읽은 분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때 즐거움을 느낍니다. 취업공부 때문에 다음 시집을 출간할 계획은 아직 미뤄두었지만, 앞으로도 삶 속에서 깨달은 생각과 마음은 글로 계속 표현해 나갈 겁니다.”

/이연수 기자



광주도철, 코로나 확산 방지 총력전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 비상근무체계 돌입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상황반 구성과 함께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

공사는 우선 승객 안전보장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전 역사에 ‘마스크 미착용 시 탑승불가’ 안내문을 추가로 설치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승차권 개표 시 자동으로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는 음성안내를 송출하는 한편, 역사 내 편의용품 자동판매기를 활용해 현장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 주관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지난달부

터 40여명을 추가 투입해 현장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공사는 특히 조직 내 감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전격 단행했다. 지난달 말부터 통상근무자 50%에 대해 재택근무에 돌입하고 전 근무자에 대한 발열 체크를 하루에 두 차례로 늘렸다. 각종 회의도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사육내 외부인 출입 금지는 물론 강도 높은 구내식당 집합제한 실시 등 강력한 통제에 나섰다.

윤진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은 1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다”며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이 하는 공동체 정신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수 기자



휴켄스(주), 수해지역 돕기 성금 1억원 쾌척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달 31일 휴켄스(주)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수해지역을 돕고자 1억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

휴켄스(주) 여수공장 회의실에서 진행된 성금전달식에는 휴켄스(주) 여수공장 김승수 공장장,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상균 사무처장 등 직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부된 1억원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피해지역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김승수 휴켄스(주)여수공장장은 “코

로나19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재난 때문에 수많은 인명과 삶의 터전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다”며 “직원들이 도와줄 방법을 모색하다 기부를 결심했다. 수재민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상균 사무처장은 “기부해준 휴켄스(주)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드린다”면서 “수재민들과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소중한 성금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김종찬 기자



광주복지재단, 복지시설 운영매뉴얼 제작

6개 분야 사례 중심 제시

광주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공통 운영매뉴얼’ 제작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발표한 ‘광주복지혁신 권고문’에 제시된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 사업 일환이다.

운영매뉴얼은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행정과 사회복지현장에서 혼선 없이 법령과 지침 및 해석을 일원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종사자·회계관리 등 6개 분야를 사례 중심으로 제시

할 예정이다.

광주복지재단은 앞서 지난 7월 모집을 통해 사회복지현장 20명 등 28명의 매뉴얼 집필진 구성을 마쳤다. 또 전문가 자문회의 3회, 500여명의 사회복지현장 종사자 의견 수렴, 타 기관 현황조사도 마무리했다.

광주복지재단 관계자는 “올해 공통 운영매뉴얼 제작 완료로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간담회와 중간보고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 사업으로 지도점검 매뉴얼도 제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성수 기자



‘중·장년 1인가구 자립역량 강화’ 우수사례 선정

지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광주 동구 지산1동은 지난달 31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공모에서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자립역량 강화사업’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광주 97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노력성, 기획성, 효과성, 활용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했다.

지산1동 지사협은 고립된 중·장년 1인가구 자립역량 강화사업을 역점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대표 사업으로는 ▲생활자립을 위한 정리수납·테라피 교육 ▲마을살림과 함께 요리교실 운영 및 돌봄이웃과 나눔 ▲참여자 주도 자조모임 및 텃밭 가꾸기 등이 있다.

김용희 위원장은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과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나눔과 배려가 있는 모두가 행복한 지산1동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이달의 5·18민주유공자 고 오세현씨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는 1일 9월 이달의 5·18민주유공자로 고 오세현 유공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 오세현 유공자는 1980년 3월 고려대를 졸업하고 유한양행에 입사한 뒤 광주로

첫 발령을 받아 내려왔다.

오 유공자는 5월 27일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 숙직을 하던 중 무차별 총격을 가하며 건물로 들어닥던 계엄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민주묘지관리소 관계자는 “고 오세현 유공자의 묘지번호는 1묘역2-44이며 언제든 5·18민주묘지에 방문하면 묘소와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인사

조선대학교 ◇학장·부학장

▲경상대학 학장 조승제 ▲언어교육원장 박영신 ▲글로벌인문대학 학장 이상원 ▲글로벌인문대학 부학장 차희정

전매게시판

우리 이웃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자우편 : jndn@chol.com

결론 ▲정준철·임영자씨 장남 천혁균, 김중모(전 KIA 타이거즈 코치)·서경화씨 장녀 민수양=5일(토) 오후 5시 제이아트웨딩컨벤션 1층 아모레를.

▲이종주·김재순씨 아들 현명군, 김민규(대한민국 제117호 가부장)·박은주씨 장녀 혜진양=5일(토) 오전 11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162번길 110 스키어웨딩컨벤션 3층 그랜드엘렌홀.

▲김영렬(대게나라 익산점 대표)·조이순씨 장남 훈민군, 안수석(비피에너지 대표이사)·송경희씨 장녀 안선양=12일(토) 오전 11시 광주 서구 광천동 웨딩그룹 위더스 1층 메리엘홀.

▲홍두석(광주 동구축구협회장)·국제라이온스 355-B1지구 사무총장) 김선희씨 장남 영학군, 양정현·이소라씨 장녀 진선양=12일(토) 낮 12시30분 광주 광산구 수완동 드메르웨딩홀 4층 라비엔홀.

▲이용수(아이메디칼대표이사)·정윤숙씨 아들 승훈군, 노완호(창원 우진통신 대표)·이채영씨 딸 현지양=27일(일) 낮 12시 광주 서구 광천동 웨딩그룹 위더스 5층 엘린홀.

모집 ▲찾아기는 평생교육 배달강좌 모집=모집기간 10월31일까지(선착순 마감), 운영기간:20일-12월15일, 대상:10인 이상의 지역주민(교육소외계층은 5인 이상 구성도 허용) *65세이상노인, 장애인, 결혼이민자, 새터민 등) 신청·방문제출, 문의·접수: 광주 서구 평생학습관 062-350-4973.

알림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니코틴·인터넷·약물·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상담=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 미혼모 상담=미혼모로 임신해 무료 산전 후 진료 및 분만 혜택과 상담(입양, 양육) 서비스 제공, 24시간 상담가능 080-733-1313, 222-9349.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 5시 무료상담 654-3802.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광주 동구 준법로 3번지.